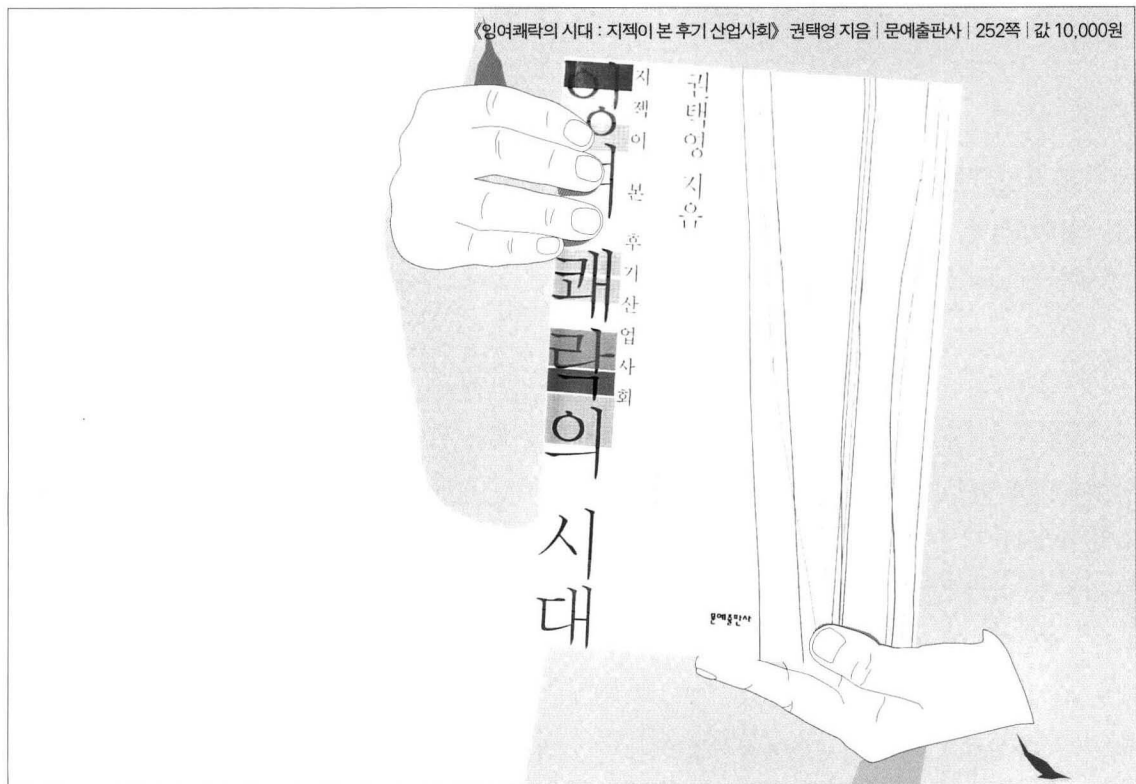


2001년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을 나는 미국 오하이오주 캔트 주립대학 모퉁이 작은 아파트에서 보냈다.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었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창 밖으로 나무와 하늘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다. 나를 초대 한 교수는 내게 책과 이 메일과 전화수화기를 연결해 주고는 구름과 나무와 텅 빈 하늘만 안겨주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얀 천장과 파란 하늘 위에 그림을 그리고 지웠다. 그는 프로이트를 비롯하여 라캉과 지젝 등 정신분석을 현대 문화와 사회와 연결시키는 학회의 회장이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한 모색

글·권택영

아침이면 위 층 어딘가에서 물소리가 쪼르르 들리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릴 것 같지 않은 육중한 문을 초조히 바라보던 긴 시간들, 그래도 도서관에서 바라보는 숲은 아름다웠다. 오하이오 주의 모든 대학도서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무슨 책이든 신청만 하면 일주일 안에 도착했다. 1990년 초에 한국에서 읽었던 지젝의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나 푸코의 《성의 역사》 제1권 등을 펼치면 전혀 다른 책을 읽는 기분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가 싶게 흰히 들여다보였다. 좋은 책은 정말 시샘이 많다. 읽는 환경에 따라 보답하는 것이 전혀 달랐다. 벽과 하늘과 나무 외에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만 철저히 보답하는가 보다. 그렇게 장자와 도덕경을 읽었고 푸코와 지젝을 읽었다. 당시 나의 관심을 끈 주제는 신 역사주의와 정신분석 간의 대립이었다. 양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의 주디스 버틀러와 슬로베니아 출신의 라캉 학파, 슬라보이에 지젝이 논쟁에서 서로 대결을 보인 직후였다. 나는 버틀러가 정신분석을 오해하는 만큼 지젝도 라캉의 어떤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장자의 도 사상을 제시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에 영어로 쓴 책 한 권 분량의 글은 아직도 수정과 보완을 못한 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돌아와서 곧바로 이 일 저 일에 휩쓸리다 보니 제대로 마음잡고 정리를 못했다. 그 대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니 창 밖으로 보던 비바람과 붉은 잎사귀들이 지꾸만 떠올랐다. 심지어 나를 불안하게 하던 엘리베이터와 9·11 사태 이후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두근거리던 순간들까지 그림계 떠올라 나는 우선 우리말로 기억을 담아두기로 했다.

기억이 퇴색하여 줄기만 앙상하게 남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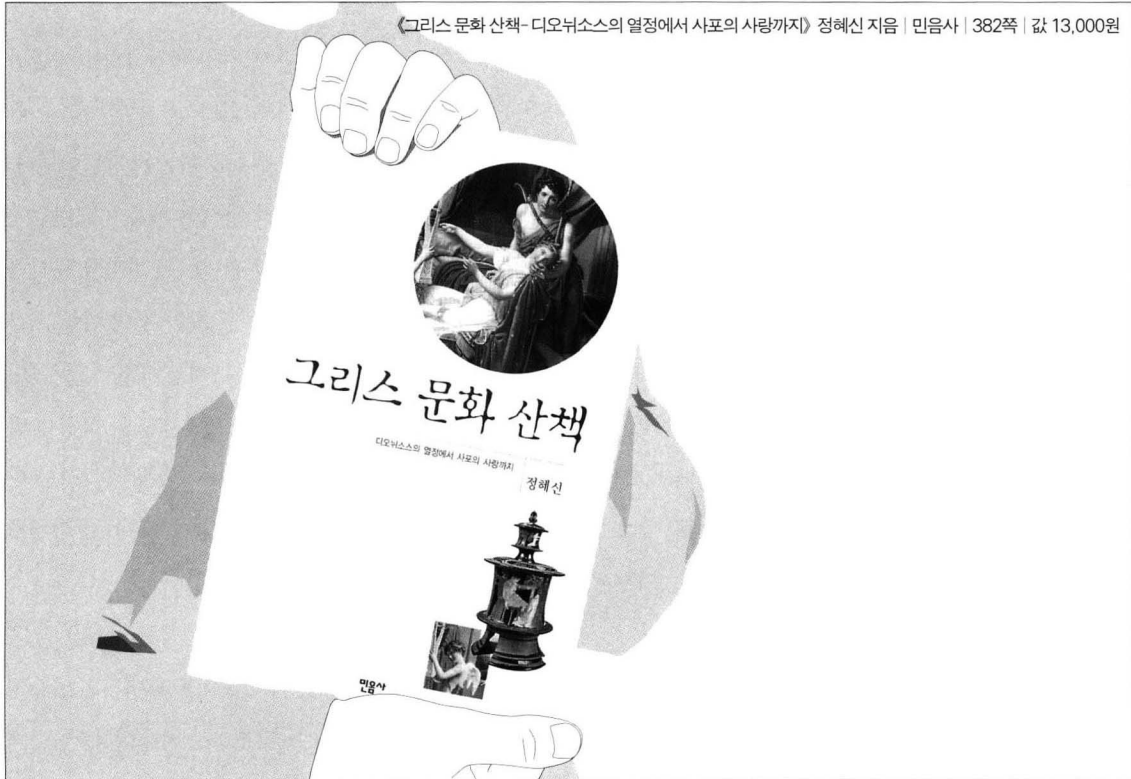
풍성한 일사귀를 한 잎이라도 더 간직하기 위해 나는 버틀러, 푸코, 그리고 라캉과 장자에 관해 연구한 것을 정리했다. 그리고 지적만 싯트 발표를 못했다. 글을 쓰려면 어느 사이에 또 책이 한 권 나오고 또 나오고... 혹시 지금까지의 주장과 다르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지적하려는 부분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뒤적거렸다. 나올 듯 말 듯하면서 그는 여전히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다르게 반복했다. 일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쓰는 그는 안타까운 천재였다.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나 《빠딱하게 보기》, 《증상을 즐겨라》, 그리고 《부정성과 함께 살기》 등을 능가하는 책이 나올까. 최근의 것 가운데 후기 산업사회를 비판한 《부서지기 쉬운 절대성》도 좋았지만 그의 독창성은 이미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_____ 그는 라캉의 정신분석을 마르크시즘과 연결시키면서 프랑스가 아닌 독일철학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이론을 만들어냈다. 프랑스 해체론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과 입장을 달리하기 위해 그는 꿈의 분석과 상품의 교환형식을 비교한다. 정신분석이란 꿈의 분석을 통해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다. 그런데 병의 원인이란 환자와 분석자가 대화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억압된 무의식이란 어딘가 숨겨진 고유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얻어진 교환가치다. 상품논리도 이와 같다. 마르크스는 교환가치가 전부인데도 사용가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_____ 지적은 프로이트가 발견한 꿈의 형식과 자본주의 상품형식을 같게 보면서 또한 라캉이 발견한 잉여쾌락을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와 같게 보았다. 잉여쾌락은 라캉이 마르크시즘의 잉여가치를 생각하고 만든 용어다. 그는 삶이 유지되는 것은 욕망 때문인데 그 욕망은 잉여쾌락, 혹은 실재계에 의해 지속된다고 암시했다. 마치 잉여가치에 의해서 상품의 순환이 지속되듯이.

지 적 은 말 한 다 .

마르크스는 사용가치를 믿은 것에서 잘못이지만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지닌 모순으로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멈추게 된다는 것을 예견한 것에서는 옳았다고. 이것이 그가 잉여, 여분, 혹은 실재계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다. 실재계란 잉여쾌락이다 그것은 상품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욕망을 지속시킨다. 그런데 바로 잉여쾌락은 어느 수준을 넘어서 도착중에 이르면 영화 〈감각의 제국〉이 보여주듯 제국의 형태를 띠게 된다. 사악한 반복이 계속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파시즘이요 도착이다. _____ 라캉도 사악한 반복을 우려하면서 순환의 속도를 늦추기를 원했다. 지적은 라캉이 〈감각의 제국〉을 예로 들어 우려한 도착적인 반복을 강조한다. 그는 영화와 서사의 분석, 그리고 이데올로기 분석을 통해 그 속에 숨은 허구를 들추어낸다. 그 허구란 실재계라는 타자The other로서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모든 견고한 것을 와해시키는 강력한 죽음충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허구로 보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해체론적 반복을 허용할 수 있는가. 반복을 낳는 잉여쾌락은 조심스럽다. 그것은 허구이지만 영원히 멈추기를 원하는 죽음충동이다. '카페인 없는 커피', '콜레스테롤 없는 달걀' 등 우리는 텅 빈 실재계 그 자체를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잉여쾌락은 개혁의 실마리로 사용해야지 과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적의 입장이다. _____ 책을 준비하던 중에 지적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강연 가운데 하나를 영화 보기와 함께 진행한다는 연락이 주최 측에서 왔다. 내가 그 프로그램을 조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동국대 영상학과 BK팀과 상의하면서 나는 그가 보내온 글이 아주 중요한 글임을 알고 흐뭇했다. _____ 지적은 9·11사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서 중요하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입장을 달리하면서 실재계를 글로벌리즘의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본다. 우리는 그에게 이 암울한 경쟁사회에서 탈출구와 같은 패러다임을 기대한다. 빨간 작은 가방하나를 끌고 세계 곳곳에서 강연과 토론현장을 누비는 그의 열정이 결실을 맺기를 빌어보면서. ✱

이 글을 쓴 텍스트영은 경희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U. C. 버클리대학 영문과에서 비평이론을 연구했으며, 현재 경희대 영어학부 교수이다. 한국 라캉과 정신분석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감각의 제국 : 라캉으로 영화 읽기》, 《라캉·장자·태극기》, 편역서로 《욕망 이론》, 《정신분석비평》 등이 있다. 제9회 김현태 평론문학상을 수상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이 그리스가 오히려 미개한 정복자를 지배했다”는 호라티우스의 찬사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 고대 그리스가 이렇게 위대한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 그들의 자유에 대한 사랑과 신념이다. 그리스 문학의 저류에는 인간존재의 나약함과 인간행운의 덧없음에 대한 ‘비극성’이 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학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했다. 그리스인들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의 자유를 갈구했던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의 자유를 갈구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과 문학

글·정혜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구한다.

자유에 대한 사고와 자유에 도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자유에 이르는 길을 외쳤다. 필자는 그리스 고전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자유를 추구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노력들을 그리스 문화·문학이 전공이 아닌 일반인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다._____ 디오니소스 종교에서는 신성한 광기를 통해 현실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다. 디오니소스 종교의 목표는 광란상태이며, 이를 그리스어로 ‘마니아’라고 한다. ‘마니아’는 광란의 의식을 통해 개인이 자아를 벗어나 신과의 합일을 이루는 디오니소스 종교의 핵심이며 절정이다. 현재의 고통과 고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충동, 자아를 벗어던져 버리고 싶은 욕망, 사회적 규제와 제약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디오니소스 종교는 광란의 의식을 통해 인간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으며, 인간들의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무해한 배출구를 제공해 주었다._____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통해 무의식에 갇힌 인간본성을 해방시키려 했다. 그리스인

들은 인간심리 속에 있는 어두운 면들조차 억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심오한 통찰력과 감수성으로 적나라하게 그려 냈다. 또한 그들은 신화 속에서 감히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감정들을 신들에게 투사한다. 이와같이 신화는 개인 속에 억압되거나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우리는 신화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내재하고 있는 억압된 욕구와 공포로부터 자아를 해방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_____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기능은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성취하는데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불행을 심오한 예술로 승화시킨 비극을 관람하면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연민과 공포의 감정들이 일깨워져서 예술적 기교에 의해 해소될 때 우리는 비극의 독특한 쾌감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혼란된 감정을 정화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균형을 되찾게 되므로 비극은 감정적 치료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나의 불행은 부조리한 우주의 한 양상이라는 인식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속박으로부터 자아를 해방시키며, 동시에 비극은 우리 자신들의 비극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돕는다. _____ 그리스인들이 오이디푸스를 영웅으로 보는 이유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그의 의지 때문이다. 그는 헛된 부귀영화보다는 비록 그것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진실을 끌어안을 위대함을 지녔다. 오이디푸스는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현상 속에 감추어진 실재를 밝혀내었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일, 자기방어 속에서 행해진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유인이었다.

소 피 스토티 인 프 로 타 고 라 스 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부르짖으며

무릇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임을 천명했다. 소피스트들은 교육을 통해서 각 개인은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당시 혁명적인 사고였다. 그때까지는 인간의 우수성은 좋은 가문과 좋은 출생 같은 어떤 타고난 혹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에 의존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피스트들은 경험세계에는 절대적인 판단의 규범이 없으며, 각각의 사안은 그 개별적인 경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판단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며,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고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이롭고 가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임을 선언했다.

에 피 쿠 로 스 는 고 통 과 불 안 으 로 부 터 의
자 유 를 외 치 면 서

마음의 '평정'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 자유임을 주장했다. 에피쿠로스주의가 추구하는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편안함과 마음의 평화를 의미한다. '쾌락'은 관능적이고 나약하고 자기탐닉적인 것과는 달리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다. 루크레티우스는 《우주의 본질에 관하여》에서 에피쿠로스주의 속에서 정신적 해방과 자유를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에피쿠로스를 암흑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정신적 구원자로 칭송한다.

그 리 스 문 화 속 에 내 재 한 자 유 에 대 한 갈 망 은
오 늘 을 사 는 현 대 인 들 에 게 도

충분히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킨다 할지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오이디푸스의 의지는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우리네 사회에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은 곧 우리들의 갈망이기도 하다. 그들의 삶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을 살찌우는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책이 자유를 갈구하는 모든 현대인들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을 쓴 정해신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1978년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그리스 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6년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에서 서양고전학 박사학위(그리스·로마 문학)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그리스 고전 문학을 강의하고 있다.